

‘정-문 단일화’ 파괴력은

# 중도 실용+참신성... 시너지 효과

## “판세 뒤집기엔 역부족” 부정적 전망도

## ‘동상이몽’속 대상·시기 싸고 진통 예고

대선을 불과 14일 앞두고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간에 ‘단일화 테이블’이 차려졌다.

이번 단일화 논의는 대선이 점차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지지층의 압박과 서로의 전략적 이해가 맞물린 결과물로 평가된다.

정 후보로서는 전략적 요충지인 수도권 표심에 효소력을 가지면서 참여정부 실정론에서 자유로운 문 후보의 ‘보완제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다. 특히,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지층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문 후보와의 단일화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문 후보도 현재의 저조한 지지율로는 대선국면을 돌파하는데 현실적 한계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총선 때까지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살아남기 위해 결국 단일화라는 승부수를 띄웠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단일화가 성사되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 후보

측에서는 지지층에서 상당한 앞서 있다는 점에서 문 후보가 결과적으로 ‘정 후보 지지와 후보 사퇴’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내년 총선을 대비하고 있는 문 후보 측에서는 “정 후보의 사퇴가 목적”이라며 배수진의 각오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단일화 시기도 문 후보 측은 대선을 앞둔 주말인 16일을 제시하고 있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단일화 논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 후보는 최대한 서둘러서 최소한 8일 이전에 단일화를 매듭짓자는 입장이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12일 이후로 단일화를 이루면 아무런 홍보 효과도 없고 설령 효과가 있더라도 표심에 영향을 끼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두 후보 간의 단일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지지층이 있는 정 후보와 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단일화를 공식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성과 개혁 성향의 문 후보가 결합하면 상당한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두 후보의 결합은 그 자체 만으로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비 한나라당권의 결속을 추동하는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양측의 단일화가 국민적 감동과 흥행을 일으킬 폭발성이 적다는 점에서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어떠한 이성적인 설득도 먹혀들

지 않아 ‘제2의 탄핵 사태’로 불리우는 현재의 반 민주세력 정서를 정동영-문국현 후보만의 후보단일화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의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정동영-문국현 후보의 단일화로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며 “마지막 남은 수는 이명박, 이회창 후보를 제외한 모든 세력이 반부패 연대에 나서 막판 대반전을 노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기득권 버리고 범여 단일화 하라”

## 광주·전남 재야인사·시민단체 촉구 잇따라

대선을 2주 앞두고 대선후보간 합종연횡이 한창인 가운데 민주·개혁진영의 본산인 광주·전남지역에서 범여권 후보단일화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남민주평화국민회의와 창조한국원탁회의, 70동지회 등 광주·전남지역 재야인사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4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연합정부로 단일화에 즉각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광주의 소리’라는 성명을 통해 “광주·전남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후보단일화를 위한 행동에 즉각 돌입하라”면서 “모든 개혁세력이 새로운 정부구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연합정부 구성의 밑줄이 될 각으로 일체의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후보단일화를 위한 절차와 물은 문국현 후보가 만들어 제시하고 정동영 후보는 유·불리를 떠나 무조건 문 후보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단일화는 아무리 늦어도 오는 10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광주YMCA무진관에서 ‘반부패 연합정부 구성을 위한 후보단일화’를 주제로 대선 집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류한호 광주대 교수는 “가치통합을 바탕으로 정동영·문국현·이인제·권영길 후보를 포함한 민주개혁평화세력 모두를 아우르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마음을 떠나게 만든 잘못에 대한 집단적 사죄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전원의 의원직 사퇴 등 진정성이 담긴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80년대 민주화에 앞장섰던 지역인사 500여명은 이날 오후 광주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범여권 후보단일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민주주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는



광주·전남민주평화국민회의 등 광주·전남지역 재야인사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4일 오후 광주 YMCA 무진관에서 ‘반부패연합 정부 구성을 위한 후보 단일화’를 주제로 대선집담회를 갖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광주·전남 청년 일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평화개혁세력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단결해 수구부패세력의 집권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은 비상시국이며 전국은 다시 광주를 주시하고 있다”며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과 87년 6월항쟁의 주역, 민주정부 1·2기 수립에 청춘을 함께 했던 우리 청년들은 수구부패세력에 정권을 내줄 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구국투쟁의 심정으로 적극 참여키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3일 자영업자 이근호(45·서울 신림동)씨 등 10여명은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지난달 22일 서울 명동성당을 출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까지 12일 동안 370km 도보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민주당 위기 상황 맞나

## 안동선 전 의원 등 38명 鼎 지지 선언

## ‘이회창 저격수’ 장전형 한나라당 입당

민주당의 위기감이 깊어가고 있다. 이인제 후보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데다 정치권의 합종연횡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 캠프로 속속 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안동선, 이윤수 전 의원 등 민주당 원외 담합위 원장과 당직자 등 38명은 4일 이회창 후보 캠프를 찾아 ‘이회창 후보와 함께 정권교체를 위해 일조하겠다’면서 지지를 선언했다.

여기에 친 민주당 성향인 우민회 등 고건 전 총리 팬클럽과 지지단체 등의 연합체인 ‘고건 대통령 추대 범 국민운동본부’ 간부 30여 명도 이날 이회창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저격수’를 자임하며 한나라당과 이회창 전 총재를 공격하는 선봉에 섰던 장전형 전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한나라당에

## 입당하고 이명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수순에 접어들면서 7석짜리 소수정당인 민주당의 고립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독자 생존 여부에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무기력한 상황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동영-문국현-이인제 후보의 단일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민주당 독자 노선을 고집하다가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당 내외에서의 후보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자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이날 대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당이 그런 얘기(후보단일화)를 하면 민주당을 죽이려는 음모로 받아들인다”며 “민주당 노선에 기반한 중도개혁정권을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 확인한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무능-아마추어리즘 만남”

## 한나라 ‘정-문 단일화’ 강력 비판

한나라당은 4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 “국정실 패세력의 정권연장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비판했다.

박정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정 후보와 문 후보의 단일화 이벤트는 이미 예견된 것이어서 새로운 것도, 참신할 것도 없다”고 평가절하한 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국민에게 어떤 감동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말바꾸기 선수에게 음해 선수인 정 후보와 세 상물정 모르고 과대망상에 젖어있는 문 후보가 만들 수 있는 정권은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일 뿐”이라고 원색

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또 “눈피리가 처진 사람이 2세를 위해 눈피리가 올라간 사람을 찾아 결혼했는데 한쪽은 눈피리가 올라가고 한쪽은 눈피리가 내려간 아이가 나왔다”면서 “무능과 아마추어리즘이 만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준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년간의 무능함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정 후보를 비난했던 문 후보가 급하니까 먼저 단일화 제의를 했다”면서 “어떤 정치적 명분으로 단일화하더라도 국정파탄세력과 야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조순형 “鼎과 신념 일치점 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조순형 의원은 4일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 대해 “그 분이 내세우는 안보리드가 법치, 대한민국을 우선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것은 제가 과거 지난 번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신념이나 그런 것들과 합치되는 점도 상당히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회창 후보는 개인적으로도 인격이나 품격이 훌륭한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선기간에 (특정후보) 지지라든가 입당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며 “당분간은 무소속으로서 독립

된 입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18대 총선에도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로부터의 영입제안설에 대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좀 들었을 뿐”이라며 “오래 몸 담았던 당을 떠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입장에서 이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를 공개지지하거나 정당에 입당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검찰의 BBK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명박 후보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참모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이 외부의 어떠한 압력과 협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日食 미도 확장개업

그 동안 성평해곡신 고령님께 일세 감사드립니다.  
개업15주년을 맞이하여 일석 미도가 새로운 분위기,  
특별하는 시선로 23층 확장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을 드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신축미도 제도 완벽형형

승반·점대모임 안 99%만 제도에서  
출단체 20석, 50석 가능 출동시주차 50대 가능

광주광역시 동구 구림 신축미도(신축미도) ☎ T. 062-234-0001, 228-0106

##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국립중앙도서관 특별 특강을 준비하는 마술가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마술 특강을 준비하는 마술가입니다.  
마술 특강을 준비하는 마술가입니다.  
마술 특강을 준비하는 마술가입니다.

수료 / 집 / 대 / 상수

- 마술 특강을 준비하는 마술가입니다.
- 마술 특강을 준비하는 마술가입니다.
- 마술 특강을 준비하는 마술가입니다.
- 마술 특강을 준비하는 마술가입니다.
- 마술 특강을 준비하는 마술가입니다.
- 마술 특강을 준비하는 마술가입니다.
- 마술 특강을 준비하는 마술가입니다.
- 마술 특강을 준비하는 마술가입니다.

무비료·출발 어떤이 미도 교실 특강

- 마술 특강을 준비하는 마술가입니다.
- 마술 특강을 준비하는 마술가입니다.
- 마술 특강을 준비하는 마술가입니다.
- 마술 특강을 준비하는 마술가입니다.
- 마술 특강을 준비하는 마술가입니다.
- 마술 특강을 준비하는 마술가입니다.
- 마술 특강을 준비하는 마술가입니다.
- 마술 특강을 준비하는 마술가입니다.

순천 교육장소

연남동사거리 인스페이스 옆 2층(순천광역시 3층)  
☎ 062-434-7857

• 전일연시 직행 순천역 10분마 교통편사유 직행 행사출장편만 •

##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434-7857